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4. 26.(수) 11:00 < 4.27.(목) 조간 > 배포 2023. 4. 26.(수)

에어버스와 기술연구센터 설립 추진한다

- 에어버스DS사 아태지역 총괄사장과 면담 통해 협력 내용 구체화
- 한국 내 에어버스 연구개발센터 설립,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4.26.(수) 오후, 에어버스DS*사(社)의 요한 펠리시에(Johan Pelissier)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사장과 만나 한국과 에어버스DS간 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 에어버스 그룹(Airbus SE)은 ①에어버스(Airbus : 민항기 부문), ②에어버스 디펜스 & 스페이스(Airbus Defense & Space : 군용기, 우주), ③에어버스 헬리콥터스(Airbus Helicopters : 헬기)로 구성

이번 면담은 지난 '22년 11월에 있었던 산업부 장관과 마이클 쉴호른 에어버스DS 최고경영자(CEO)가 면담에서 논의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 한국 내(內) 에어버스 기술연구센터(ITC : International Technology Center) 설립, ▲ 민수 및 군수 항공기와 소형위성 공동개발, ▲「에어버스 공급망 회의」 연례 개최, ▲ 산업부와 에어버스DS간 위 안건을 포괄하는 업무협정(MOU) 체결 등을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한국 내(內) 에어버스 기술연구센터(이하 ITC) 설립을 통해, 항공우주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해온 국내 기업들과 에어버스 간의 협력 확대와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아울러, 국내 기업들과 에어버스 그룹간의 공급망 및 첨단기술 협력 확대를 위해,「에어버스 공급망 회의」를 매년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산업부가 추진 중인「항공우주산업 펀드」에 에어버스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에어버스DS 측은 금년 하반기에「기술연구센터(ITC)」설립 착수를 목표로 입지와 협력 기관 등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부가 제안한 투자 펀드도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에어버스DS 측은 ITC가 향후 한국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빠르게 기술상용화를 지원하는 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에어버스(그룹)는 ‘74년 민항기(대한항공에 A399B4 납품) 분야 한국 진출을 시작으로, '05년 한국 최초의 정지궤도 위성 개발, '06년 수리온 헬기 공동개발 착수 등, 5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항공·우주·방위 산업 분야에서 한국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것에 대해 사의를 전달하고,”

“한국 정부는 기업과 시장친화적인 투자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에어버스DS의 ITC가 설립되면 에어버스에게 최적의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가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 라고 언급하였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국 우주항공팀	책임자	팀 장	김봉석 (044-203-4305)
		담당자	사무관	임형남 (044-203-430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